

민주적 인간상

무슨 일을 치루어 나가려면 거기에는 강력한 지도력과 이에 따르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늘 들어 오던 말이며 또 요즘 선거 때를 맞이하여 각 정치 단체에서 내거는 지도자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의 자기 확신이 때로는 자기 도취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역량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무슨 일든지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소신에서 자기 도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그마한 기관이나 교회를 담당할 목사, 또는 기관장을 위시해서 모든 생활 영역 속에서 흔히 보게 되는 사례인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소신과 자기 확신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과연 그 소신이나 자기 확신이 어떻게 자기 도취와 구별될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흔히 소신껏 일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만 불손해지며 남의 인격을 존중히 할 줄도 모르고 안하무인격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을 본다.

이런 것을 자기 확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기의 소신에 못지 않게 남의 소신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량과 겸양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찾고 싶다.

자기의 확신에 넘쳐 흐르는 지도자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러한 자기 도취에서 인간 관계를 망쳐버린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실리를 거두는 데, 남을 이용하는 데만 급급하면 자연히 친구를 잃고 전전한 인간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우상 숭배라고도 할 것이다. 돌과 나무를 깎아서 우상으로 숭배하던 때는 지났다고 하지만 현대인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자아 숭배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에서 배격하는 우상 숭배는 이러한 자아 도취와 자아 숭배인 동시에 자아 숭배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의 영웅 숭배적인 태도 역시 배격하고 있다. 남을 '굉장히 추켜 올려놓고 그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통일 문제가 요즘 갑자기 활발하게 논의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국가 안보,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광범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민주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주적 인간상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 통일론에는 약간의 불안을 금할 길이 없다. 지도자들이 온통 자기 도취에 빠지고, 지도 받는 사람은 자주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매달려서 가치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통일의 기본 조건인 <자유>가 보장될 것인가? 말하자면 우리가 자기 숭배나, 영웅 숭배 같은 우상을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의 통일 논의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나 할까!